

석사학위논문

관계증진 집단상담이 아동의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박 태 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 봉 화

2002년 2월

관계증진 집단상담이 아동의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1년 10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이봉화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1년 12월 일

심 사 위 원 장인
심 사 위 원인
심 사 위 원인

<초록>

관계증진 집단상담이 아동의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에 미치는 효과

이 봉 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이 연구는 아동들에게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집단상담을 적용하여, 이것이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의 하위 요인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관계증진 집단상담은 아동의 교우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2. 관계증진 집단상담은 아동의 교우관계 질의 하위 요인인 인정과 관심, 갈등해결, 갈등과 불신, 도움과 지도, 교제와 오락 그리고 친밀한 의사교환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주시내 S초등학교 6학년 전체 274명을 대상으로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와 질 수준이 낮은 아동 중 여자 16명을 선정하여 상담을 희망하는 아동 8명을 상담집단으로 나머지 8명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 적용된 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계명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소¹⁾ (1985)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8) “대인관계 향상 프

* 본 논문은 2002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그램”, 정태일·이원구(1999) “인간관계 교육 프로그램”, Harry Palmer(2000)가 자아발견을 위한 지침서로 개발한 “아바타 프로그램”을 토대로 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상담프로그램의 실시는 연구자가 직접 매주 2회씩 5주간에 걸쳐 총 11회기를 하였으며, 한 회기마다 60~80분이 소요되었다.

측정도구는 Bukowski, Hoza와 Newcomb(1987)가 개발했고 Parker와 Asher(1993)가 수정한 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 40문항, Parker와 Asher(1993)가 개발한 아동의 교우관계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현정(1994)이 수정, 변안한 검사지를 본 연구자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검증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증진 집단상담은 아동들의 교우관계 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집단상담의 실시 이후 아동들은 친한 친구와 잘 지낼 수 있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고 느끼며 자신의 친구관계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이 높아졌다.

둘째, 관계증진 집단상담은 아동의 교우관계에서 친밀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집단상담의 실시 이후에 아동들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인정해 주며 지지를 주고 받고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려는 행동 경향이 높아졌다. 또한 아동들은 서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비밀 이야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친구와 함께 하려는 행동경향이 높아졌다.

셋째, 관계증진 집단상담은 아동의 교우관계에서 갈등해결에 효과가 있다. 집단상담의 실시 이후 아동 서로의 관계에서 싸움을 자주 하거나 괴롭히거나 충돌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낮아졌고 만약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화해하려는 행동경향이 높아졌다.

관계증진 집단상담은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의 대부분의 하위요인에 효과가 있다. 아동들은 집단상담의 전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졌으며 또한 서로 지지를 주고받으며, 서로가 즐겁게 활동하였고, 서로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상호간의 친밀감을 경험함으로써 교우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2
II. 이론적 배경	4
1. 집단상담의 특성	4
2. 아동기 교우관계의 특징	8
3. 교우관계의 만족도와 질	12
4. 관계증진 집단상담과 교우관계와의 관계	15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8
1. 연구대상	18
2. 실험설계	18
3. 연구절차	19
4. 측정도구	22
5. 자료처리	23
IV. 연구결과 및 해석	24
1. 연구대상에 대한 동질성 검증	24
2. 가설 검증	26
V. 요약, 결론 및 제언	34
1. 요약	34
2. 결론	37
3. 제언	38
참고문헌	39
Abstract	45
부 록	47

표 목 차

<표Ⅲ-1> 실험설계	19
<표Ⅲ-2>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	21
<표Ⅲ-3> 교우관계 질 진단척도의 문항 구성	22
<표Ⅳ-1> 교우관계 만족도 사전검사 비교	24
<표Ⅳ-2> 하위 요인의 사전검사 비교	25
<표Ⅳ-3> 교우관계 만족도 사후검사 비교	26
<표Ⅳ-4> 인정과 관심의 사후검사 비교	27
<표Ⅳ-5> 갈등해결의 사후검사 비교	28
<표Ⅳ-6> 갈등과 불신의 사후검사 비교	29
<표Ⅳ-7> 도움과 지도의 사후검사 비교	30
<표Ⅳ-8> 교체와 오락의 사후검사 비교	31
<표Ⅳ-9> 친밀한 의사교환의 사후검사 비교	32

부 록 목 차

<부록1> 집단상담 프로그램	48
<부록2> 집단상담 프로그램 활동자료	62
<부록3>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 검사	66
<부록4> 소감문	71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타인들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잠시도 생을 유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 상호간의 관계성이 인간존재의 본질적인 한 측면(Laing, 1965)인 동시에 하나의 필연적인 사실(Buber, 1965)이기 때문이다.

이형득(1999)은 우리의 대인관계가 만족스럽고 효과적일 때 그러한 인간관계의 경험을 통하여 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대인관계가 불만족스럽고 비효과적일 때 우리의 성장과 발달은 방해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집단상담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Yalom(1995)은 집단상담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지니게 하고, 서로가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아동의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인간관계의 접촉범위가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 점차 확대되어지는데 이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호 접근하며 정신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교우관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자아의식을 보다 많이 살릴 수 있고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또는 사회생활에서 생기

는 욕구 불만을 친구를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교우 관계는 그의 행동과 전인의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어려서부터 친구 상호간의 사회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오세득(1990)은 만약 이 시기에 동료집단에서의 소외, 배척의 경험을 갖게 되면 성장함에 따라 부정적인 성격과 인간관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동발달연구에서 대부분 부모-아동간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오늘날까지도 친구관계의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Furman, 1982). 지금까지의 연구는 교우관계의 개념 및 형성요인(김미혜,1992; 김민선, 1989; 정미진, 1992), 우울감(정영인, 1988) 등 한가지 요인에만 집중되어 왔다. 아동이 교우관계의 적응정도에 따라 성장하면서 사회화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교우관계의 질적인 측면 즉, 자신의 교우관계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또한 교우관계가 어떠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 실험 연구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계증진 집단상담이 아동의 교우관계의 만족도와 질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동자신을 돕고, 그들을 지도하는 일선교사를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이 연구는 관계증진 집단상담이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 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관계증진 집단상담은 아동의 교우관계 만족도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2. 관계증진 집단상담은 아동의 교우관계 질의 하위요인인 인정과 관심, 갈등해결, 갈등과 불신, 도움과 지도, 교제와 오락, 친밀한 의사교환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관계증진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교우관계 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 가설 2. 관계증진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교우관계 질의 하위요인이 유의하게 변화될 것이다.
- 2-1. 인정과 관심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 2-2. 갈등해결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 2-3. 갈등과 불신이 유의하게 감소할 것이다.
 - 2-4. 도움과 지도가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 2-5. 교제와 오락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 2-6. 친밀한 의사교환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이 관계증진 집단상담이 아동의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집단상담의 특성, 아동기 교우관계의 특징, 집단상담과 교우관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집단상담의 특성

집단상담의 개념은 집단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론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정의들이 제시되어 왔다. Cohn과 Combs(1963) 등은 집단상담을 정상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동료집단 속에서 전문상담자와 함께 그들의 태도가 변화되어 보다 능률적으로 발달상의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문제와 감정을 탐색하는 역동적 대인관계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최태호,1992, 재인용). Gazda(1975)는 집단상담을 허용적이고 신뢰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하여 집단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대인관계의 과정으로 정의하였으며(문현식,1993,재인용), Mahler(1971)는 서로 존중하고 허용하는 분위기 속에서 집단성원들이 개개인의 자기성장을 목표로 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문현식,1993,재인용).

Ohlsen(1975)은 집단상담의 대상에 대한 설명을 덧붙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즉 집단상담이란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탐색하여 자기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안창연,1993,재인용). 이혜성(1978)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더욱 잘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익혀 행동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자신의 입장을 집단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하는 과정이라 하였고, 이성진(1979) 등에 의하면 개인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면대면의 관계에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 주는 과정인데 비하여 집단상담은 비교적 적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인간상호간의 작용을 통하여 보다 깊은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을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박현환,1992,재인용). 또 강기호(1987)는 집단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적 조직체 속에서 그 구성원들과 상호 인간관계를 통하여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였다(최태호,1992,재인용).

이형득(1999)은 적은 수의 비교적 정상인들이 한 두 사람의 전문가의 지도아래 혹은 상호관계성의 역학을 토대로 하여 신뢰롭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혹은 한층 높은 수준의 개인의 성장발달 및 인간관계 발달의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동적 대인관계의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집단상담은 정상적인 내담자와 집단의 역동과 욕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신뢰롭고 안정되고 역동적인 집단장면에서 자기이해, 자기수용 및 타인수용, 자기개방을 통하여 개인의 행동변화와 성장발달을 촉진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집단상담의 갖고 있는 기능은 사회적 관계라 할 수 있다. 인간

은 자기 외의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 및 집단적 속성으로 인해서 개인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인간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리학, 교육학, 산업심리 등에서 특히 최근에 와서 인간상호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집단상담을 많이 활용하게 되었다(남궁기홍,1990,재인용).

Yalom(1993)은 집단상담을 ‘미시사회’(social microcosm)라고 하였는데, 이는 집단에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본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회상황에서 타인들과 상호작용하듯이 집단에서도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대인관계 세계를 집단에서도 똑같이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당면하는 심리적인 문제는 집단 안에서 재현되며 동시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집단 안에서 마련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 안의 대인관계에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단 구성원간에 인간관계의 양태가 변화하면 개인도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동적 대인관계경험을 통해 대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심이 고조되면서 집단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는 급격한 변화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 이와같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의 문제에 직면하고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 그 결과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서문제와 장애를 겪는 아동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빚어지는 사회적 문제 또한 심각하다. 그 예로써 소년 범죄의 경우 1993년(110,604건)에 비하여 1997년(164,182건)에는 48.8%의 증가를 보였으며, 학교 폭력은 1993년(5,470건)에 비하여 1997년(39,883건)에는 72.9%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김동준,2000, 재인용). 이러한 사실로 보아 아동들의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적응 및 정신건강은 사회적 능력과 관계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예방적인 활동을 통해 아동 비행과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Parker와 Asher(1989)는 특히 아동기 때에 겪는 친구관계의 어려움이 성인기에 겪게 되는 부적응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Roff(1961)도 아동기에 대인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이 군대에서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으며, Ullman(1957)은 아동기 때에 대인관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이 학교생활에서도 낙오가 되는 것으로 밝혔다.

현대사회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향유하고 있으나, 정신적인 생활은 극도로 빈곤하여 진정한 인간관계는 더욱 단절되고 자아는 상실되어가고 있으며 타인과 더불어 참된 대화는 점차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 교육은 언어적-인지적인 면만 강조한 나머지 느낌, 감각, 인간관계, 욕구 등을 포함하는 정의적 영역을 무시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학습경험을 하는데 소홀 하였다. 때문에 교사-학생간, 학생 상호간의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학급사회에서는 비인간적, 거리감, 분리감, 소외감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올바른 자기성장 및 자기발전과 자기이해를 돕는 정의적 교육이 중심이 된 집단상담 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기성장을 통한 자아실현을 도울 수 있는 참으로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더 없이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동적인 대인관계경험을 통해 대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계증진 집단상담이 아동들 자신의 교우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나아가 바람직한 교우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아동기 교우관계의 특징

아동의 교우관계 개념을 살펴보면 교우관계는 아동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영역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는데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어 그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자들마다 교우관계를 정의하는 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Damon(1977)은 상대방에 대한 '선호(liking)'를 교우관계의 기본요소로 간주하였으며 교우관계를 '선호'로 특징지워지는 인간관계로 보았다. 즉 친구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며 서로 이해하고 사적인 생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감정, 비밀을 이야기하는 등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고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이며 양방적인 관계라고 하였다.

'상호성(reciprocity)'을 교우관계의 필수 요소라고 본 Mannarino(1980)는 한 아동이 다른 사람을 향해 표현하는 애정, 존중이 상호적일때만 그 아동은 교우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La Gaipa(1980)는 근접성, 공유활동, 놀이, 태도, 가치 및 인구학적 유사성, 공통관심, 상호적 선호, 물질적 이타주의, 자아강화, 자극적 가치, 친밀 가능성, 진실성, 수용, 친구의 성격특성에 대한 경탄, 충성과 헌신, 오랜 상호작용의 결과, 그리고 전반적 평가 등 21가지로 나누어 교우관계를 설명하였다.

Berndt(1981)는 외적 특성의 묘사, 심리적 태도, 놀이와 연합, 친사회적 행동, 공격성, 친밀감과 신뢰, 충성된 지지 및 신의의 8가지로 범주화하여 교우관계를 설명하였으며, 또한 이희승(1982)도 오래두고 가깝게 사귀면서 애정과 존중을 가지고 타인에게 애착하는 관계로서 교우관계를 설명하였다. Hartup(1983)은 교우관계에 대하여 애정이나 관심, 흥

미 및 정보를 공유하면서 타인과 접촉을 유지하는 이원적이며, 독특한 애착관계로 정의한 바 있다.

따라서 교우관계는 인지 발달이나 친사회적 행동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교우관계 개념의 공통점은 서로 애정의 호감과 관심을 가지고 친밀관계를 유지하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를 두 아동이 서로 애정, 호감, 관심을 가지고 비교적 장기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계라고 규정한다.

한편 아동기 교우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친구라는 매우 중요한 집단과 접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가정이 생활의 중심이었던 아동에게 가정이라는 사회와 학교라는 두 개의 다른 사회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이현정, 재인용,1994).

Ellis 등(1981)은 만 1~12세 사이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아동들은 평균적으로 26%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46%의 시간을 또래 아동들과 함께 보내며, 어른과 함께 있는 시간은 15%에 달했다(송명자,1996, 재인용). 이처럼 대다수의 아동들이 또래 아동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을 알 수 있다.

교우관계는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김동준,2000, 재인용). 아동들은 또래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며, 이를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것으로 삼게된다. 또한 또래모델의 성공과 실패를 관찰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될 행동을 구별하게 된다(Ekerman,1989).

또한 또래는 서로에게 중요한 강화자가 된다. 강화자로서의 또래의 기능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더욱 크게 작용하여,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급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동의 칭찬이나 비난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교실 내에서 서로를 돕고, 협동하며, 긍정적인 행

동을 강화하는 풍토를 만들어주면 이 시기 아동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Furman & Galvin,1989). 그리고 또래는 아동에게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의 기능을 갖는다.

교우관계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아동의 사회화이다(Hartup,1978). 친구를 통해 아동은 사회에서 무엇이 수용되고 수용되지 않는지를 배워가며 사회의 가치관을 흡수한다. 그러나 친구 집단은 사회화 과정에 목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가치나 규범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은 없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규칙을 준수하는 것도 배우고 협동심과 타협도 알게 되며 나아가서 자유 중심적 사고는 줄어들게 된다. 아동은 다양한 그들의 집단 내에서 각기 다른 특권과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작은 사회를 경험한다(이현정,1994,재인용). 뿐만 아니라 친구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는다. 이는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자아 개념의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학교친구는 많은 또래들 중에서 아동에게 의미있는 타자로서 기능한다.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또래를 대등한 입장에서 지각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타주의 및 충성과 헌신으로 교우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게 된다(Damon, 1977; Mannarino, 1980). 교우관계는 자기수용, 신뢰, 친밀감을 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안정, 질투, 분개 등을 유발함으로써 이후의 대인적 적응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Kurdek & Krile, 1982).

그렇다면 과연 아동들은 어떻게 해서 친구가 되는 것일까? 아동 자신, 부모 또는 교사와의 면접을 통해 보거나 실제로 아동들이 친구가 되는 과정을 관찰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아동이 친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인 요인은 유사(similarity)이다. 먼저 아이들은 연령이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 친구가 되는 경향이 크다. 성의 유사성 또한 주요요인이다. 전반적으로 아동기에는 성이 연령보다 더욱 강한 선택요인이다(Berndt, 1981). 학교에 대한 태도의 유사성 또한 우정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들은 공부에 대한 욕구와 가치인식이 유사하며 성적이 비슷할 때 쉽게 친구가 된다. 놀이, 음악, 운동 등 학교 바깥에서 하는 활동의 유사성 또한 우정관계에 영향을 미친다(송명자, 1996, 재인용).

아동이 친구가 되는 데 작용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친사회적(prosocial) 특성이다.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명료성, 우정관계가 지속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갈등극복능력, 상대방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적절히 드러내는 자기표출능력 등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여러 주요 사회적 특성이 아동기에도 이미 우정관계에 작용하게 된다(Gottman, 1983).

친근성(intimacy) 또한 우정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정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므로, 친근성은 우정형성의 핵심적 요인이다. 친근성은 친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지식의 양과 자신의 비밀을 친구에게 털어놓는 자기노출의 정도로 측정된다. 자연적인 상황에서 아동들을 관찰한 연구(Berndt, 1981; Gottman, 1983)에 의하면, 서로 친구인 아동간에는 그렇지 않은 아동사이보다 실제로 자기노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친구간의 자기노출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 그러나 서로의 비밀을 인식하고 지켜주는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적어도 아동기 중반부터이다. 친사회적 행동은 아동기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다가, 청년기에 이르면 우정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지표가 된다(Buhrmester, 1987).

마지막으로, 친구관계에서 수반되는 불가피한 갈등(conflict)의 극복양상은 우정관계의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갈등은 친구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호작용 양상이다. 실제로 친구간의 갈등은 친구가 아닌 아동간의 갈등보다 그 빈도가 훨씬 높다. 그러나 아동들은 친구간의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artup, 1988). 아동들은 서로 공평하면서도 만족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며, 때로 작은 갈등은 묵과 해버리는 지혜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보다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들에게 교우관계는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로서, 강화자로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사회적 비교의 기능을 하며, 유사성, 친사회적 특성, 친근성, 갈등의 극복 양상은 교우관계의 지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성을 띤 교우관계에 아동들 자신은 어느만큼 만족하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3. 교우관계의 만족도와 질

아동의 교우관계를 두 아동의 서로 애정, 호감, 관심을 가지고 비교적 장시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계라고 규정하고, 교우관계는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모델로서, 강화자로서, 사회적비교자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아동은 교우관계의 적응정도에 따라 교우관계의 질적인 측면 즉, 자신의 교우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가 그 성장에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한다.

우선 교우관계의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교우관계 질을 ① 아동의 교우관계가 아동에게 놀이, 우정, 오락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 ② 아동의 교우관계를 특징짓는 친밀한 비밀애기와 교류의 정도 ③ 친구들이 서로 서로 공유하고 돕고, 이끌어주는 정도 ④ 아동들이 교우관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킨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4개 범주로 나누고 있다(Bernet & Perry,1986; Buhrmester & Furman,1987; Bukowski Hoza & Newcomb,1987). 그러나 Parker와 Asher(1989)는 교우관계 질을 6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었다.

- ① 인정과 관심(Validation and Caring) : 아동 서로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관심,지지, 흥미의 정도
- ②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 아동 서로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는 정도
- ③ 갈등과 불신(Conflict and Betrayal) : 아동 서로의 관계에서 갈등, 불일치, 괴롭힘, 불신 등이 나타나는 정도
- ④ 도움과 지도(Help and Guidance) : 아동 서로가 일상적인 일이나 도전적인 일에 대해서 도와주고 노력하는 정도
- ⑤ 교제와 오락(Companionship and Recreation) : 아동 서로가 함께 학교 안팎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정도
- ⑥ 친밀한 의사교환(Intimate Exchange) : 아동 서로가 사적인 비밀애기나 자신의 감정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도

Sullivan(1953)은 교우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이 교우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아동보다 더 많은 협동과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교우관계에 나타나는 상호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서로 상호적인 관계일수록 친근감과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몇몇 연구자들은 아동 초기에 다른 일상적인 교우관계로부터 친한 교우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갈등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갈등을 빨리,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Gottman & Parkhurst, 1980). 따라서 친구사이에서 의견의 불일치를 나타낸 갈등은 긍정적으로 아동에게 문제해결력을 발달시켜 사회적 인지성장과 지적발달을 가져오게 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방에게 모방할 기회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기회를 주어 새로운 방향에 접근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배중순,1989).

교우관계의 만족도에는 2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Bokowski & Hoza, 1989). 그 첫 번째는 아동이 상호적인 교우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동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질적인 면, 특히 지지와 갈등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Parker와 Asher(1983)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아동들은 그들의 관계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없는 아동들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 질과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보면, 인정과 관심, 교제와 오락, 도움과 지도, 친밀한 의사교환과는 정적상관을, 갈등과 불신은 부적상관을 보여 인정과 관심, 교제와 오락, 도움과 지도, 친밀한 의사교환에 대해 높게 지각할수록 만족도가 높게, 갈등과 불신에 대해서는 낮게 지각할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이현정, 1994, 재인용).

정영인(1988)은 아동 자신이 또래관계에서 불만족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미래 성인생활의 심각한 적응문제를 낳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습득을 위한 직접적인 훈련을 통해 또래 집단에서 인기가 없는 아동의 교우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

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에게 집단상담이 교우관계의 만족도와 질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질적인 측면에서 세분화된 Paker와 Asher(1989)의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4. 관계증진 집단상담과 교우관계와의 관계

집단상담을 통하여 집단원들은 진정한 의미의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되며 타인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에 소속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맛보게 되며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집단상담과 교우관계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우선 집단상담이 인간관계 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보면 배효균(1988)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화노트를 활용한 집단상담이 인간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인간관계 척도의 하위 영역 중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의 6개의 영역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고 밝혔고, 유현식(1989)은 또래에 의한 집단상담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존감과 인간관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집단상담이 자존감, 인간관계 변화에 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재덕(1990)은 자기성장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집단상담이 초등학생 학급 소외자들의 대인관계 능력과 인성특성을 변화시켜주는가를 규명하려 하였는데 집단경험의 결과 초등학교 학급 내 소외자들의 인간관계와 인성변화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또한 황호갑(1990)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의 결과가 자

아개념 및 인간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집단상담을 실시한 집단은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아개념, 아동들 상호간의 인간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집단상담이 자아 수용 및 대인관계 지향성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보면 강서구(1992)는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인간관계훈련 프로그램을 경험시켰을 때 자아 수용 및 대인 관계 지향성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계획적인 인간관계 훈련프로그램을 경험한 집단은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자아 수용도가 높아졌고 전체적인 대인관계 지향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김선웅(1989)은 훈련집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들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프로그램을 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아수용도, 타인수용도, 기본적 대인관계지향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으며 최태호(1992)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성장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집단상담이 아동의 인간관계 변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자아수용도, 타인수용도, 기본적 대인관계 지향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상담이 의사소통과 자기표출 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권택환(1990)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이 자기표출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본 결과 집단상담은 아동의 자기표출 빈도, 내용, 시간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했고, 김길자(1990)는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사소통기법훈련 프로그램이 아동들의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 자아개념 및 인간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 결과 의사소통 기법훈련 프로그램은 아동의 의사소통능력, 인간관계 증진에 효과적이었다고 밝혔으며 이옥수(1996)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에게 자기노출 및 공감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하여 자기노출, 공감 그리고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기노출 능력, 공감 능력 향상, 인간관계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집단상담이 갈등해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류진혜(1990)는 갈등해소를 위한 집단상담을 통하여 조망이 확대되면 대인간 갈등의 해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그 결과 집단상담을 경험한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대인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인 갈등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송종희(1997)는 집단상담이 대인관계 갈등해결방식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그 결과 집단상담을 경험한 피험자들이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대인관계 갈등상황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인 갈등완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위의 연구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동기 또래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또래관계 향상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이 교우관계의 적응정도에 따라 성장하면서 사회와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교우관계의 질적인 측면 즉 자신의 교우관계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관계증진 집단상담이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장에서는 연구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대상, 실험설계, 연구절차, 측정도구, 자료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시내 S초등학교 6학년 전체 274명을 대상으로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 수준이 낮은 아동 중 여학생 16명을 선정하여 상담을 희망하는 아동 8명을 상담집단으로 나머지 8명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2. 실험설계

이 연구의 실험설계는 실험처치를 한 상담집단과 그렇지 않은 비교집단을 비교하여, 실험처치의 효과를 검증하는 전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pretest · 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이다. 실험설계를 도시하면 <표Ⅲ-1>과 같다.

<표Ⅲ-1> 실험 설계

상담집단	01	X	02
비교집단	03		04

01 , 03 : 사전검사 02 , 04 : 사후검사

X : 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적용

3. 연구절차

1) 연구의 진행절차

이 연구는 상담·비교집단 구성, 사전검사,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적용, 사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 시내 S초등학교 6학년 전체 274명을 대상으로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 수준이 낮은 아동 중 여학생 16명을 선정하여 상담을 희망하는 아동 8명을 상담집단으로 나머지 8명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상담집단에게는 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적용하였고, 비교집단에게는 상담 기간 중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상담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5주간(2001년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2회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11회기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한 회기마다 소요시간은 60~80분으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실시를 마친 후, 사전검사에 사용했던 동일한 검사도구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2) 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계명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소(1985)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8)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정태일·이원구(1999) “인간관계 교육 프로그램”, Harry Palmer(2000)가 자아발견을 위한 지침서로 개발한 “아바타 프로그램”을 토대로 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내용은 <표Ⅲ-2>와 같다.



<표Ⅲ-2> 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내용

회기	주 제	목 적	활 동 내 용
1	애칭짓기 및 자기소개	·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참여동기 증진 · 상호간의 이해증진	· 이웃을 사랑합니까? · 프로그램 소개 · 애칭짓기 및 자기소개 · 집단규칙 정하기
2	지금의 나와 변화하고 싶은 나	· 친구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이해.	· 신체이완 · 지금의 나와 변화하고 싶은 나
3	원안에 뛰어들기	· 집단 구성원 협동심 · 친구관계에서 내가 노력해야하는 점 이해	· 원안에 뛰어들기
4	화해의 언덕 오르기	·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해소방법 이해 · 자신과 부정적, 긍정적 관계를 맺는 친구관계 이해	· 화해의 언덕 오르기경험
5	친구관계 바라보기 I	· 갈등관계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	· 나무꾼과 사냥꾼 · 친구관계 지도 그리기
6	친구관계 바라보기 II	· 친구에 대한 새로운 이해	· 나는 하나요! · 갈등관계 표현하기
7	친구의 장점 적어주기	·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	· 부지런히 움직여요 · 내가 본 친구의 장점 적어주기
8	심상훈련	· 친구의 소중함 알기	· 심상훈련 i · 심상훈련 ii
9	장님 안내하기	· 친구관계를 돌아보고 좋은 관계를 유지	· 장님안내하기 경험
10	친구에게 편지쓰기	· 집단경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나누고 앞으로의 다짐	· 친구에게 편지쓰기
11	새 마음 갖기		· 소감문 작성 발표

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두 가지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하여 Bukowski, Hoza와 Newcomb(1987)가 개발했고 Parker와 Asher(1993)가 수정한 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를 이현정(1994)이 수정, 번안한 검사지를 본 연구자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① 인정과 관심 ② 갈등해결 ③ 갈등과 불신 ④ 도움과 지도 ⑤ 교제와 오락 ⑥ 친밀한 의사교환이라는 6개의 하위척도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측정도구의 요인별 문항번호와 문항수는 <표Ⅲ-3>과 같다.

<표Ⅲ-3> 교우관계 질 진단척도의 문항 구성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계수(α)
인정과 관심	3, 4, 5, 7, 9, 11, 12, 14, 29, 40	10	.88
갈등해결	10, 25, 34	3	.65
갈등과 불신	2, 8, 19, 20, 26, 30, 36, 39	8	.64
도움과 지도	16, 17, 23, 27, 31, 32, 33, 35, 38	9	.88
교제와 오락	1, 6, 18, 21, 22	5	.67
친밀한 의사교환	13, 15, 24, 28, 37	5	.78

둘째, Parker와 Asher(1993)가 개발한 아동의 교우관계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2개의 질문을 사용하였다(이현정,1994). “친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까?” 라는 2개의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Parker와 Asher(1993)가 두 문항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는 $r=.85$ 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5. 자료처리

자료의 분석은 SPSS/PC⁺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검증을 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전과 후의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고, 프로그램 실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고, $P<.01$,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관계증진 집단상담이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에 의해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과의 사전검사와 실험처치 후 사후검사의 차이를 비교·검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에 대한 동질성 검증

1)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전검사 동질성 검증

교우관계 만족도에 대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IV-1>과 같다.

<표IV-1> 교우관계 만족도 사전검사 비교

	M	SD	t
상담집단(N=8)	8.853	0.64	-0.63
비교집단(N=8)	9.00	0.91	

또한 교우관계 질의 하위 요인에 대한 집단 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IV-2>

와 같다.

<표IV-2> 하위 요인의 사전검사 비교

하위요인	집 단	M	SD	t
인정과 관심	상담집단	41.00	7.17	0.16
	비교집단	40.50	4.37	
갈등해결	상담집단	11.37	1.76	-0.66
	비교집단	12.00	2.00	
갈등과 불신	상담집단	15.50	4.59	-0.20
	비교집단	16.00	5.01	
도움과 지도	상담집단	37.87	5.22	0.68
	비교집단	36.25	4.26	
교제와 오락	상담집단	21.25	2.49	0.55
	비교집단	20.50	2.87	
친밀한 의사교환	상담집단	17.25	5.00	-0.59
	비교집단	18.62	4.24	

<표IV-1>의 교우관계 만족도의 사전검사 비교와 <표IV-2>의 교우 관계 질의 하위 요인의 사전검사 비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 집단으로 간주되었다.

2. 가설 검증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 관계증진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교우관계 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교우관계 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3>과 같다.

<표IV-3> 교우관계 만족도 사후검사 비교

	M	SD	t
상담집단(N=8)	9.87	0.70	2.41*
비교집단(N=8)	9.03	1.02	

* : $p < .05$

<표I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우관계 만족도 사후검사 비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41, p < .05$). 따라서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교우관계 만족도는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는 집단상담에 참여하면서 아동들이 몸과 마음으로의 교류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더 느낀 결과로 해석된다.

자신의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성원 전체의 소감문(부록4)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 가설 2의 검증

가설 2 : 관계증진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교우관계 질의 하위요인이 유의하게 변화될 것이다.

(1) 인정과 관심에 대한 차이검증

가설 2-1. 인정과 관심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인정과 관심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4>와 같다.

<표IV-4> 인정과 관심의 사후검사 비교

	M	SD	t
상담집단(N=8)	43.75	4.68	2.27 *
비교집단(N=8)	38.62	4.34	

* : $p < .05$

<표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과 관심의 사후검사 비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27, p < .05$). 따라서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인정과 관심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지금의 나와 변화하고 싶은 나, 친구관계 바라보기, 장점 적어주기를 통하여 아동들 서로가 각자의 교우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한 표현에 귀 기울여주고 지지·위로해 주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집단상담을 통해 인간관계 척도의 하위영역중 신뢰감, 친근감, 이해성의 영역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는 배호균(1988) 황호갑(199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로 보였다.

(2) 갈등해결에 대한 차이 검증

가설 2-2. 갈등해결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갈등해결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5>와 같다.

<표IV-5> 갈등해결의 사후검사 비교

	M	SD	t
상담집단(N=8)	13.37	1.18	2.74 *
비교집단(N=8)	11.37	1.68	

* : $p < .05$

<표IV-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등해결의 사후검사 비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74, p < .05$). 따라서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갈등해결은 비교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원안에 뛰어들기, 화해의 언덕 오르기, 심상훈련을 통하여 아동 서로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정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단상담을 통해 갈등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인 갈등해소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류진혜(1990) 송중희(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를 보였다.

(3) 갈등과 불신에 대한 차이 검증

가설 2-3 : 갈등과 불신이 유의하게 감소할 것이다.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갈등과 불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6>과 같다.

<표IV-6> 갈등과 불신의 사후검사 비교

	M	SD	t
상담집단(N=8)	12.00	4.34	-3.47 **
비교집단(N=8)	20.37	5.26	

** : $p < .01$

<표IV-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갈등과 불신의 사후검사 비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3.47, p < .01$). 따라서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갈등과 불신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이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친구관계에 대한 지도를 그려보고 갈등관계를 심리극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아동 서로의 관계에서 갈등 불일치, 괴롭힘, 불신 등이 나타나는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3회기 ~ 5회기에 두 아동의 사이에 갈등이 생겨 서로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으나(부록 4), 친구관계 바라 보기에서 화해를 나누게 되었다.

(4) 도움과 지도에 대한 차이 검증

가설 2-4. 도움과 지도가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도움과 지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7>과 같다.

<표IV-7> 도움과 지도의 사후검사 비교

	M	SD	t
상담집단(N=8)	40.25	3.99	2.97 *
비교집단(N=8)	32.00	6.76	

* : $p < .05$

<표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움과 지도의 사후검사 비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 = 2.97, p < .05$). 따라서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 집단의 도움과 지도는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중에서도 장님 안내하기를 통하여 친구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경험함으로써 아동 서로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정도가 높아졌다고 해석된다.

(5) 교제와 오락에 대한 차이 검증

가설 2-5 : 교제와 오락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교제와 오락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8>과 같다.

<표IV-8> 교제와 오락의 사후검사 비교

	M	SD	t
상담집단(N=8)	22.75	2.18	4.14**
비교집단(N=8)	18.00	2.39	

** : $p < .01$

<표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제와 오락의 사후검사 비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4.14, p < .01$). 따라서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교제와 오락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이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회기별로 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로간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실시했던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합니까?, 나무꾼과 사냥꾼등이 집단상담이 끝난 후 구성원들이 소속된 교실에서 다른 친구들과 다시 할 정도로 아동 서로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정도가 많아졌다고 해석된다.

(6) 친밀한 의사교환에 대한 차이 검증

가설 2-6 : 친밀한 의사교환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집단상담을 실시한 후의 사후검사에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IV-9>와 같다.

<표IV-9> 친밀한 의사교환의 사후검사 비교

	M	SD	t
상담집단(N=8)	21.25	1.83	2.59*
비교집단(N=8)	16.75	4.55	

* : $p < .05$

<표Ⅳ-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밀한 의사교환의 사후검사 비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59, p < .05$). 따라서 집단 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의 친밀한 의사교환은 비교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서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나와 변화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기, 친구의 장점 적어주기, 친구에게 편지쓰기를 통하여 아동 서로가 사적인 비밀 얘기나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부록4). 또한 집단상담은 친구들간에 서로의 관심사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한 이형득(1999)의 견해와도 일치를 보이고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아동들에게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관계증진 집단상담을 적용하여, 이것이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의 하위 요인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관계증진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교우관계 만족도가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관계증진 집단상담에 참여한 상담집단은 비교집단보다 교우관계 질의 하위요인이 유의하게 변화될 것이다.

2-1. 인정과 관심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2-2. 갈등해결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2-3. 갈등과 불신이 유의하게 감소할 것이다.

2-4. 도움과 지도가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2-5. 교제와 오락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2-6. 친밀한 의사교환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이다.

가설의 검증 과정은 상담집단과 비교집단의 구성, 사전검사, 집단상담의 적용, 사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제주시내 S초등학교 6학년 전체 274명을 대상으로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 수

준이 낮은 아동 중 여학생 16명을 선정하여 상담을 희망하는 아동 8명을 상담집단으로 나머지 8명을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계명대학교 학생 생활 연구소(1985)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8)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정태일·이원구(1999) “인간관계 교육 프로그램”, Harry Palmer(2000)가 자아발견을 위한 지침서로 개발한 “아바타 프로그램”을 토대로 하여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상담프로그램의 실시는 연구자가 직접 매주 2회씩 5주간에 걸쳐 총 11회기를 하였으며, 한 회기마다 60~80분이 소요되었다.

집단상담의 실시를 마친 후, 사전검사에 사용한 동일한 측정도구로 상담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SPSS/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검증을 하였고, $P < .01$,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우관계 만족도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비교에서, 사후검사의 비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2.41$, $p < .05$). 따라서 집단상담은 교우관계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교우관계의 질의 하위 요인에 대한 사전-사후검사의 비교에서, 6개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정과 관심에 대한 차이검증에서 사전-사후검사의 비교 결과, 사후검사의 비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2.27$, $p < .05$). 따라서 집단상담은 인정과 관심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갈등해결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전-사후검사의 비교 결과, 사후검사의 비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2.74, p < .05$). 따라서 집단상담은 갈등해결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갈등과 불신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전-사후검사의 비교 결과, 사후검사의 비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3.47, p < .01$). 따라서 집단상담은 갈등과 불신의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도움과 지도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전-사후검사의 비교결과, 사후검사의 비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2.97, p < .05$). 따라서 집단상담은 도움과 지도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교제와 오락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전-사후검사의 비교 결과, 사후검사의 비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4.14, p < .01$). 따라서 집단상담은 교제와 오락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친밀한 의사교환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사전-사후검사의 비교 결과, 사후검사의 비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2.59, p < .05$). 따라서 집단상담은 친밀한 의사교환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에서 관계증진 집단상담은 아동의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의 6가지 하위요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상담에 참가한 아동들이 직접 경험을 작성한 소감문(부록4)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아동들은 집단상담의 전 과정을 통해 집단 속에서 서로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서로를 지지해주며, 서로가 즐겁게 활동하였고, 서로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상호간의 친밀감을 경험함으로써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이 증진되었음을 볼 수 있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증진 집단상담은 아동들의 교우관계 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집단상담의 실시 이후 아동들은 친한 친구와 잘 지낼 수 있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고 느끼며 자신의 친구관계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이 높아졌다.

둘째, 관계증진 집단상담은 아동의 교우관계에서 친밀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집단상담의 실시 이후에 아동들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인정해 주며 지지를 주고 받고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려는 행동 경향이 높아졌다. 또한 아동들은 서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비밀 이야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 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며 친구와 함께 하려는 행동경향이 높아졌다.

셋째, 관계증진 집단상담은 아동의 교우관계에서 갈등해결에 효과가 있다. 집단상담의 실시 이후 아동 서로의 관계에서 싸움을 자주 하거나 괴롭히거나 충돌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낮아졌고 만약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화해하려는 행동경향이 높아졌다.

관계증진 집단상담은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의 하위요인에 효과가 있다. 아동들은 집단상담의 전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은 집단 속에서 서로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졌으며 또한 서로 지지를 주고받았으며, 서로가 즐겁게 활동하였고, 서로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상호간의 친밀감을 경험하며 지혜롭게 갈등 해결을 함으로써 교우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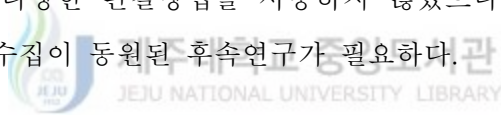
3. 제언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상담이 아동의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하여 학교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특정 S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많은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남자 아동 집단, 여자 아동 집단을 따로 구성하여 성별 집단 간 차이 등을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아동들의 객관적인 행동변화의 준거를 면접, Video촬영 등 다양한 관찰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자료수집이 동원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문홍(1991). 집단상담을 통한 인간성 교육 실천사례, 부산직할시교육연구원.
- 강서구(1992). 인간관계훈련이 아동의 자아수용 및 인간관계 지향성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 석사논문.
- 권택환(1990). 집단상담이 아동의 자기표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석사논문.
- 김길자(1990).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기법훈련 프로그램이 사회적 자아개념과 인간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 석사논문.
- 김동준(2000). 집단미술상담이 아동의 교우관계 질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 석사논문.
- 김미애(1995). 집단상담이 아동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 석사논문.
- 김미혜(1992). 아동의 공평성, 우정개념 발달 및 분배 행동과의 관계, 연세대 박사논문.
- 김민선(1989). 국민학교 아동의 우정관계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 김선웅(1989). 훈련집단 프로그램이 국민학교 어린이의 인간관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충북대 석사논문.
- 김지연(1997). 자기성장집단상담이 집단응집력·대인관계 지향성 및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 석사논문.
- 김춘봉(1989). 집단상담활동이 아동의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 석사

논문.

남궁기홍(1990). 잠재력 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인간관계 개선에 관한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류진혜(1990). 집단상담을 통한 대인간 갈등해소, 한양대 석사논문.

문선모(2000). 학생상담 이론과 실제, 양서원.

문현식(1993). 집단상담이 성취동기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 석사논문.

박병수(1991). 대인관계 문제해결 기술훈련에 대한 실험적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박영준(1991). 대인관계 문제해결 기술훈련에 대한 실험적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박준철(1984). 집단상담이 긍정적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 석사논문

박현환(1992). 집단상담이 국민학생의 긍정적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 석사논문.

부산교육287호(1998). 「다양한 상담활동을 통한 올바른 인성지도」,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배종순(1989). 아동의 의견에 대한 일치여부와 친구관계 정도가 사회적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논문.

배호균(1988). 대화노트를 활용한 집단상담이 국민학생의 인간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 석사논문.

설기문(1997).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학지사.

성락인(1991). 대인관계 문제해결기술 훈련 효과에 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손숙(1993). 대인문제해결훈련이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수용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 석사논문.

송명자(1996). 발달심리학, 서울:학지사.

송종희(1997). 집단상담이 자아강도수준에 따라 대인관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 석사논문.

송홍조(1990). 자기성장 훈련을 통한 집단상담이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 석사논문.

안창연(1993). 집단상담이 국민학교 아동의 바람직한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 석사논문.

양재혁(1996). 심리극 집단상담을 통한 충동성과 대인간 갈등해결 양식의 변화연구, 한국외대 석사논문.

알롬(1993).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최해림·장성숙 역(1993), 하나의학사.

오세득(1990). 국민학교 고학년에서 인기아와 고립아의 자아개념 비교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유권재(1986). 집단상담과정에서 집단원의 자아개념이 피드백 수용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 석사논문.

유현식(1989). 또래에 의한 집단상담이 자존감 및 인간관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 석사논문.

이경희(1992). 심리극 집단상담을 통한 자아개념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석사논문.

이경희(1997). 대인문제해결훈련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친사회적 행동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 석사논문.

이옥수(1996). 자기노출 및 공감훈련프로그램이 국민학생의 인간관계 증진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 석사논문.

이재덕(1990). 참 만남 집단활동이 학급 소외아의 인간관계 및 인성특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 석사논문.

- 이현정(1994). 아동이 지각한 교우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 이형득(1999). 인간관계훈련의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 (1999). 집단상담의 실제, 중앙적성출판사.
- 정미진(1992). 아동의 우정개념과 어머니의 대인관계 양식간의 상관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정영순(1997).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변화에 미치는 효과, 강원대 석사논문.
- 정영인(1988). 인기도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외로움 및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 정은수(1992). 인간관계훈련이 피배척아동의 교우관계 개선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 석사논문.
- 최태호(1992). 자기성장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한 집단상담이 아동의 인간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전주우석대 석사논문.
- Harry Palmer(2000). 「다시 떠오르기」, 정신세계사.
- 황호갑(1990). 집단상담이 자아개념 및 인간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전주우석대 석사논문.
- Berndt, T.J.(1981). Relations between Social cognition, non-social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 The case of friendship. In J.H.Flavvell & L.Ross(Eds.). *social cognitive development* *Frontiers cambridge univ. press.*
- Bukowski, W.M., & Hoza, B.(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J.Bernet & G.W.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15-45). New York:Wiley.

- Buber, M., *Between man and man*, New York: Macmillan, 1965a.
- Buhrmester, D.(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1101-1113.
- Damon, W.(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Jossey-Bass.*
- Furman, w.(1982), "Children's Friendship". *Review of Quay, L. Troll, and G.E.Finely, (eds.), New York:wiley, 327-339.*
- Furman, W.,& Galvin, L.A.(1989). peers' influence on adjustment and development. In T.J. Berndt & G.w.Ladd(Eds.). *Pe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New York:wiley.
- Gottman, J. M.(1983). How children become frien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3, serial No.201).
- Gottman, J. M., & Parpkhurst, J.(1980). A developmental theory of friendship and acquaintanceship process, In W.A.Collins(Eds.).*Minnesota smposia on chil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Vol.13, pp.197-253). Hillsdale, NJ:Erlbaum.
- Hartup, W.W.(1978). Children and their Friends. Issues in *social Development*. H. McGruk(ed.). London:Metheum.
- (1988). Conflict and the friendship relations of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9,1590-1600.
- Kurdek, L.A., & Krile, D.(1982). A. developmental analyses of the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y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53,1485-1491.

- La Gaipa, J.J.(1980). A developmental study of the meaning of friendship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
- Laing, R.D. The divided self Baltimore: Penguin Books, 1965.
- Mannarino, A.P(1980). Friendship Patterns and altruistic behavior in preadolescent males. *Developmental Psychology*, 12, 555-556.
- Parker, J.G.,& Asher,S.R(1989). Peer relation and social adjustment:Are Friendship and group acceptance distinct domain? In W.M.Bukowski(chair), properties, process, and effects of friendship relation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rr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Kansas city, Mo.
- Roff, M.(1961). Childhood social interactions and young adult bad conduc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 333-337.
- Sullivan, H.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New York,Norton.
- Ullman, C. A.(1957). Teachers, peers and tests as predictors of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8, 257-267.

The Influence of Relationship-promoting Group Counseling on the Satisfaction of Children's Fellowship

Lee Bong-hw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University

Counseling Psychology

Academic Adviser: Park Tae-su

This study is designed to take a look at what influences relationship-promoting group counseling has on the subordinate factors of the satisfaction of children's fellowship. With this in mind, the researcher came up with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1. What influences does relationship-promoting counseling have on the satisfaction of children's friendship?
2. What influences does relationship-promoting counseling have on the subordinate factors of the quality of children's friendship such as compassion, interest, conflict-solving, conflict and distrust, help and guidance, company and amusement and intimate communication?

The researcher worked with a total of 274 sixth graders attending S elementary school in the city of Jeju, conducting a test on th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friendship. The researcher selected 16 female subjects who showed a low satisfaction, who were divided into a 8-student counseling group and a 8-student contrast group. The researcher modified, complemented and reorganized the following group-counseling programs: "Friendship-promoting Program" made by the Student Life Research Institute affiliated to Kyemyeong University, "Human Relationship-Promotion Program" made by the Plaza of

Juvenile Conversation; "Human Relationship Educational Program" made by Jeong Taek-il and Yi Won-ku; "아빠타 Program" developed by Harry Palmer as a vehicle for self-discovery. The researcher conducted 11 times counseling(twice a week), and one counseling session lasted from 60 minutes to 80 minutes.

The researcher also adopted and modified the following measuring instruments: Friendship Quality Questionnaire developed by Newcomb and modified by Parker and Asher; a testing statement developed by Parker and Asher and modified by Yi Hyeon-jeong. The researcher depended on SPSS/PC+ program with a view to making an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pre-test results and post-test result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relationship-promoting group counseling has an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of children's friendship. After group counseling, children turn out to be able to be more friendly with their friends, to feel delighted and to be satisfied with their friendship.

Second, relationship-promoting group counseling has an influence on enhancing the intimacy of their friendship. After group counseling, the subjects had a strong tendency to take more interest in each other, to show compassion, to give and take support and to be kind. The subjects tended to tell their own secrets, or to express their feelings and to enjoy themselves and to be with their friends.

Third, relationship-promoting group counseling has an influence on working out conflicts. After group counseling, the subjects had a lower tendency to fight, to harass and to come into conflict. In case a conflict incurs, they tended to more effectively solve it and come to terms with each other.

Fourth, relationship-promoting group counseling has an influence on most of the subordinate factors of th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friendship. The subjects showed an interest in each other, support themselves, engaged in delightful activities, and experienced mutual intimacy when helping each other with the help of relationship-promoting group counseling.

부 록

- <부록1> 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 <부록2> 집단상담 프로그램 활동자료
- <부록3>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 검사
- <부록4> 소감문

<부록1> 관계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제1회기 ; 애칭 짓기 및 자기소개

1. 목표

- ①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목표를 이해할 수 있다.
- ② 애칭과 자기소개를 통하여 자기를 알고 집단원 상호간에 친밀감을 형성 할 수 있다.

2. 준비물 : 이름표, 싸인펜, 자기소개 기록용지

3. 활동내용

1) Warm Up : '당신은 당신 이웃을 사랑합니까?'

- ① 아동들이 서로 원을 만들어 의자에 앉는다. 이 때 술래가 앉을 자리는 없다.
- ② 술래가 의자에 앉아 있는 아동 중의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 친구에게 “당신은 당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말한다.
- ③ 이때 지목당한 친구가 “예” 라고 대답하면, 지목당한 친구 양 옆에 앉은 사람만 재빨리 서로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한다. 그 사이에 술래가먼저 앉게 되면 앉지 못한 사람이 다음 술래가 된다.
- ④ 만일 지목당한 아동이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술래는 “그럼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다시 묻는다.
- ⑤ 이때 술래가 어떤 특정한 인물(예. 안경을 쓴 사람, 아침을 먹은 사람 등)을 이야기하면, 그에 해당되는 아동들끼리 모두 자리를 바꿔 앉아야 한다. 이 때 술래는 그 사이에 자리에 앉는데, 앉지 못한 사람이 다음

술래가 된다.

2) 프로그램 소개

- ① 교우관계를 탐색해보는 프로그램
- ② 교우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3) 애칭 짓기 및 자기소개

- ① 집단 내에서 불러졌으면 하는,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애칭을 짓는다.
- ②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신의 애칭도 소개한다.

4) 집단 규칙 정하기

- ① 집단 원들끼리 Brain Storming하여 전지에 규칙을 적는다.
 - 다른 친구 이야기 잘 들어주기
 - 서로 놀리거나 험담하지 않기
 - 집단에서 이야기 된 것 비밀 지키기
 - 집단에 빠질 경우 미리 선생님, 친구에게 연락하기
 - 시간 약속 잘 지키기

5) 마무리

- ① Warm Up, 애칭 짓기, 자기소개 등을 하면서 자신이 알게 되었거나 느낀점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제2회기 지금의 나, 변화하고 싶은 나

1. 목표

- ① 친구관계에서 지금의 자신과 변화하고 싶은 자신을 이야기함으로써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신을 발견 할 수 있다.

2. 준비물 : 필기도구, A4용지, 효과음악

3. 활동내용

1) 신체 이완

- 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는다.
- ② 복식 호흡을 하면서 신체를 이완시킨다.
- ③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상태를 가만히 느껴본다.

2) 지금의 나, 변화하고 싶은 나

- ① A4용지를 나누어주고 왼쪽에 친구관계에서 지금의 자기 자신, 오른쪽에 변화하고 싶은 자신을 글 이나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하도록 한다.
- ② 지금의 나와 변화하고 싶은 나를 비교해보고 그것을 집단구성원들에게 소개한다.
- ③ 원하는 구성원이 주인공이 되어 심리극으로 자신의 갈등을 표현한다.

4. 마무리

- 1) 오늘의 활동에서 자신이 알게 되었거나 느낀점을 발표하고 토의한

다.

5. 활동 자료 : 음악자료, 이완 훈련 자료

제3회기 원 안에 뛰어들기

1. 목표

- ① 집단 구성원들이 긴장을 풀며 협동심을 발휘하게 한다.
- ② 원 안에 뛰어들기는 교우관계에서 어떤 집단에 들어가거나 나오기가 힘든 것과 똑같음을 체험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2. 준비물 : 없음



3. 활동내용

- ① 한 사람이 술래가 되고 나머지는 서로 팔짱을 끼고 원을 만든다.
- ② 술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원을 뚫고서 그 안으로 들어 가려한다.
- ③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성공하면 다음에는 원 밖으로 나온다.
- ④ 술래의 활동이 끝나면 다른 사람과 교대해서 한다.
- ⑤ 술래가 되어서 원안으로 들어 갈 때, 다른 구성원들이 술래를 막으려고 하는 동작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신의 마음을 탐색해보도록 한다.

4. 마무리

- 1) 오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알게 되었거나 느낀점을 발표하고 토

의한다.

제4회기 화해의 언덕 오르기

1. 목표

- ①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는 자신,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을 한다.
- ② 갈등을 언덕을 오르며 해소할 수 있다.
- ③ 일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2. 준비물 : 시계

3. 활동

- ① 활동을 할 적합한 장소를 선택한다. (계단이 있는 장소)
- ②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 상황을 마음 속에 떠올린다.
- ③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말, 행동을 토로해 내는데 목소리는 자신이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한다.
- ④ 한계단 오를 때 마다 새로운 대상, 상황에 대해 반복한다.
- 4) 목적지까지 다 가서 돌아올때는 떠오르는, 보이는, 들리는 모든 대상에 대해 “행복하세요”라고 답한다.

라. 마무리

- 1) 오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알게 되었거나 느낀점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제5회기 친구관계 바라보기 I - 친구관계 지도 그리기

1. 목표

- ① 집단구성원들이 반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친구, 집단구성원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친구,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친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 ② 나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친구들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
- ③ 나와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친구들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

2. 준비물 : 필기도구, 기록용지

3. 활동내용

1) Warm Up : 나무꾼이다! 사냥꾼이다! 태풍이다!

- ① 구성원들끼리 3인 1조가 되어 양옆사람은 나무, 가운데 사람은 다람쥐가 된다.
- ② 술래는 나무꾼이다!, 사냥꾼이다! 태풍이다!라는 세가지 선언 중 하나를 선언할 수 있다.
- ③ 나무꾼이다라는 선언을 할 경우는 양옆에 있던 나무들이 자리를 옮겨서 다른 짝을 만나야한다.
- ④ 사냥꾼이다라는 선언을 할 경우는 가운데 있던 다람쥐가 다른 짝들을 찾아가야 한다.
- ⑤ 태풍이다라는 선언을 할 경우는 세명이 모두 자리를 이동하여 새로운 3인 1조를 만들어야한다.
- ⑥ 이때 술래는 선언을 하고 난 후에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구성원이 새로운 술래가 된다.

2) 친구관계 지도 그리기

- ① 반에서 나의 친구관계 지도를 그린다.
- ② 친구에 대한 감정을 10점 척도로 나타낸다.
- ③ 친구관계 지도를 보면서 우리 반에서 내 친구관계 특징을 살펴본다.
- ④ 자신의 친구관계 특징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4. 마무리

- 1) 오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알게 되었거나 느낀점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제6회기 친구관계 바라보기 II - 갈등관계 표현하기 -



1. 목표

- ① 자신의 입장과 상대의 입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갈등관계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힘을 기른다.
- ② 두 개의 서로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한다.
- ③ 인간관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2. 준비물 : 방식

3. 활동내용

- 1) Warm Up : 나는 하나요!

- ① 집단구성원 전체가 두 줄로 서는데 한 줄이 한 팀이 된다.
- ② 가위, 바위, 보로 먼저 활동할 팀을 정한다.
- ③ 처음 주자가 ‘나는 하나요’, ‘ 나는 둘이요’, ‘나는 셋이요’ 수를 더할수록 목소리와 행위를 점점 크게 한다.
- ④ 상대팀이 보기에 크기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팀으로 교대한다.

2) 갈등관계 표현하기

- ① 모두 눈을 감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대상을 떠올려본다.
- ② 눈을 뜨고 구성원 중에 그 대상과의 갈등관계를 표현하길 원하는 아동을 앞으로 나오게 한다.
- ③ 원형 가운데 방석을 가져다 놓는다.
- ④ 가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를 방석에 앉힌 다음, 하고 싶은 이야기나 오래 참아 두었던 감정을 털어놓는다.
- 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마친 다음에는 역할을 교대해서 방석에 앉아서 자신이 그 친구가 되어본다.
- ⑥ 친구의 입장에서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해보게 한다.

4. 마무리

- 1) 오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알게 되었거나 느낀 점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제7회기 친구의 장점 적어주기

1. 목표

- ① 다른 친구의 눈에 비친 자신의 장점을 확인하여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점검을 할 수 있다.
- ② 다른 구성원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본인에게 주는 영향을 통해 교우관계에서 적용할 수 있다.
- ③ 집단 구성원들끼리 친밀한 의사교환을 할 수 있다.

2. 준비물 : 8절 도화지, 끈, 싸인펜, 편지

3. 활동내용

1) Warm Up : 부지런히 움직여요!

- ① 같이 부를 동요를 칠판에다 적는다.
- ② 노래가 시작되면 두 사람이 일어서서 집단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을 자신들이 앉았던 자리로 데려온다.
- ③ 빈자리 양쪽에 있는 사람은 다른 구성원 중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앉힌다.
- ④ 노래가 끝났을 때 짝을 못 데려온 구성원들이 벌칙을 받게된다.

2)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① 집단에서 활동하면서 친구의 모습을 이모저모 보았는데 그 중에서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점을 찾아다니며 적어주는 것이다.
- ② 자신이 적어 준 한 단어, 문장이 그 친구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 진지하게 참여하도록 한다.

3) 내가 본 친구의 장점은?

- ① 각자가 끈 달린 새 도화지를 등뒤로 맨다.
- ② 싸인펜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친구의 장점을 정성껏 적어준다.
- ③ 활동이 끝난 후 등 뒤에 도화지를 앞으로 돌려서 장점으로 써 준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본다.

4. 마무리

- 1) 오늘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알게 되었거나 느낀 점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제8회기 심상 훈련

1. 목표

- 1) 구성원 각자가 겪고 있는 갈등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 2) 구성원들이 원하는 생활을 하는 데 직접적인 활용을 할 수 있다.

2. 준비물 : 효과음악, 긴장이완 자료

3. 활동내용

1) 심상훈련 - I

- ① 천장을 바라보며 바닥에 편안하게 눕는다.
- ② 효과음악에 귀 기울이며 모든 신체부분을 편안히 이완시킨다.
- ③ 리더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제일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 냄새, 꽃, 소리 등을 떠올리며 모든 신체부위로

충분히 느껴본다.

2) 심상훈련 - II

- ① 어깨와 허리를 펴고 편안한 자세로 앉는다.
- ② 숨을 마시면서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떠올리고 가만히 느껴보고, 숨을 내쉬면서 조금 전에 떠올렸던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본다.
- ③ 되풀이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느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

4. 마무리

- 1) 오늘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알게 되었거나 느낀점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제9회기 장님 안내하기

1. 목표

- ① 보다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집단의 신뢰를 높이게 한다.
- ② 언어에 의한 의사전달에서 느끼지 못하는 인간관계를 새롭게 느끼게 된다.
- ③ 평상시에는 알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감각활동을 깨닫게 한다.

2. 준비물 : 눈가리개

3. 활동내용

1)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① 너무 장난스럽고 심한 안내는 금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② 입으로 하는 대화보다는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다.

2) 장님 안내하기

- ① 집단구성원 중 두 사람씩 짝을 정한다.
- ② 두 사람이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진 사람이 술래가 되어 눈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이긴 사람은 안내자가 된다.
- ③ 안내자는 장님이 된 사람에게 손에 닿는 물건을 만져보게 하면서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④ 다시 역할을 바꾸어서 반환점을 돌아오게 한다.

4. 마무리

- 1) 오늘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알게 되었거나 느낀점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제10회기 친구에게 편지쓰기

1. 목표

- 1) 지금까지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불편하게 생각했거나, 자신을 힘들게 했던 친구에게 마음을 열어 편지를 씀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수 있다.

- 2) 자신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보다 넓은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2. 준비물 : 필기도구, 편지지

3. 활동

- 1) 눈을 감고 지금까지 경험의 장에서 활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본다.
- 2) 경험 했던 내용중에 자신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순간을 가만히 느껴본다.
- 3) 지금 이 순간에 자신과의 관계에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를 떠올려 가만히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 4) 눈을 뜨고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쓴다.

4. 마무리

- 1) 오늘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알게 되었거나 느낀점을 발표하고 토의한다.

제11회기 새 마음 갖기

1. 목표

- 1) 지금까지 활동들을 돌아보며 인상깊었던 경험이 무엇이었고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생각해본다.
- 2)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배운 점, 느낀 점 또는 새롭게 생각하게 된

점등을 소감문으로 작성한다.

2. 준비물 : 필기도구, 소감문 기록용지

3. 활동

- 1) 눈을 감고 지금까지 활동들을 떠올려본다.
- 2) 집단구성원들에 대해 새롭게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눈다.
- 3) 배운 점, 느낀 점, 앞으로의 계획을 글로 쓴다.
- 4) 돌아가면서 소감문을 발표한다.

4. 마무리

- 1) 전체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한다.
- 2) 서로 경험을 같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의미로 안아준다.
- 3) 사후검사는 5일 후에 실시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부록2> 집단상담 프로그램 활동 자료

1회기 : 활동 유인물

< 자기 소개 >

▶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봅시다.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겠지만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 나의 애칭은 ()입니다.

● 내가 좋아하는 것은..

● 내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은.....

● 이 집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 지금 현재의 느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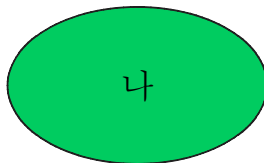
● 기타로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제5회기 활동 유인물

<친구관계 지도 그리기>

- ▶ 잘 생각하고 난 후 나와 관련된 친구관계를 지도로 그려봅시다.
 - 마음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친구 - 나에게서 아주 가깝게
 -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느껴지는 친구 - 나에게서 조금 멀어지게
 - 마음으로 멀게 느껴지는 친구 - 나에게서 멀게

- ▶ 나의 친구관계지도



<부록3> 교우관계 만족도와 질 검사

이 질문지는 여러분의 친구관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질문에든 맞거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질문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지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친구나 선생님에게 보여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초등학교 학년 반

이름 :

- I. 반 친구들 중에서 자신과 친한 친구 이름을 3명씩 적고 그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에 ○표해 주세요.
(여자는 여자친구들 중에서, 남자는 남자친구들 중에서만 선택해주세요.)

()	()	()
-----	-----	-----

- II. 다음에 있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자신의 느낌과 같은 번호에 ○표해 주세요.

	전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저 그렇다	좋다	매우 좋다
1. 친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2. 친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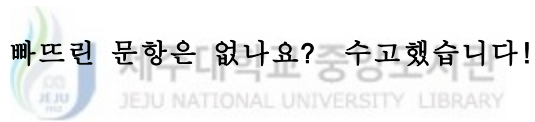
Ⅲ. 자신이 친한 친구라고 선택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자신의 느낌과 같은 번호에 대해 솔직한 자신의 느낌과 같은 번호에 ○표해 주세요.

	전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저 그렇다	좋다	매우 좋다
1. 친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2. 친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까?					
3. 내 친구들은 내가 일을 잘 해낸다고 나에게 말한다.					
4. 다른 아이들이 내 욕을 하면 내 친구들은 나를 감싸준다.					
5. 서로서로가 중요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준다.					
6. 일을 할 때 항상 짝으로 서로를 선택한다.					
7. 내 친구들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한다.					
8. 내 친구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나에게 대해 욕한다.					
9. 내 친구들은 놀이에 대한 재미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10. 서로에게 화난 것을 어떻게 해결 하는지 이야기한다.					
11. 내 친구들은 다른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좋아한다.					

	전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저 그렇다	좋다	매우 좋다
12. 내 친구들은 나에게 아주 영리하다고 말한다.					
13. 우리들의 문제를 항상 서로 이야기한다.					
14. 내 친구들은 나의 생각에 대해 내가 좋게 생각하도록 해준다.					
15. 내가 어떤 일에 대해 화가 났을때 친구에게 이야기한다.					
16. 서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준다.					
17. 서로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는다.					
18. 함께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를 한다.					
19. 의견충돌이 많다.					
20. 나는 내 친구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21. 서로 친구 집에 놀러간다.					
22. 쉬는시간에 함께 논다.					
23. 내 친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조언해 준다.					

	전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저 그렇다	좋다	매우 좋다
24.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25. 우리는 싸우면 쉽게 화해한다.					
26. 우리는 싸움을 많이 한다.					
27. 우리는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쓴다.					
28. 서로에게 화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아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29. 내 친구들은 나의 비밀을 다른 아이들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30. 우리는 서로 많이 괴롭힌다.					
31. 내 친구들은 어떤 일에 대한 좋은 방법을 알려준다.					
32. 우리는 서로에게 물건을 빌려준다.					
33. 내 친구들은 내가 좀 더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준다.					
34. 의견충돌이 일어나면 빨리 해결한다.					
35. 어떻게 그 일을 끝낼 것인지에 대해 서로 좋은 생각을 말한다.					

	전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저 그렇다	좋다	매우 좋다
36. 내 친구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37. 개인적인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다.					
38. 우리는 숙제를 서로 돕는다.					
39. 서로 자신만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40. 내 친구들은 나의 감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부록4> 소 감 문

이번 상담을 통해서 여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상담시간에 한 모든 놀이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담을 신청한 것이 무척 잘한 행동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시간이 되면 뭐든지 답답했던 마음이 ‘퐁’ 뚫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참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친구관계도 이번 상담을 하면서 많이 나아진 것 같았다. 아 참!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하면 언제나 친구들의 얼굴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요즘에 좋은 친구가 많이 생겨서 좋다. 내가 할 일은 이 친구들에게 잘 대해주는 일이다. 아무튼 열심히 생활해야 겠다.

해리포터



정말 이 상담을 하면서 많은 걸 알 수 있었고 더 친구의 사이가 더 나아질 수 있었다. 상담이 끝나고 오는 길이면 그 하루가 힘들었던 것이 다 날아가고 기분 좋은 마음만 남아 있었다. 정말 싫은 친구를 보면 두려웠지만 이젠 정말 달라졌다. 지금도 조금은 남아 있지만 전보다 두렵지 않다. 그리고 이 상담을 하면서 친하지 않던 친구들과 같이 해보니 즐겁고 이젠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인사도 하게 되어서 친구관계도 정말 좋았고 이것을 하면서 나도 이젠 정말 친구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친구가 있어서 좋은점 친구가 잘못된 점을 찾고 친구와 잘 사귀는 그런 일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너무 즐겁고 이젠 친구와 정말 사이좋게 단짝 친구가 되었으면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파란마음

이것을 하기 전에는 애들한테 괜히 열이 받고 싸우기도 하고 빠지기도 자주해서 친구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 상담을 하고 나서는 친구사이가 더 좋아졌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때에는 상담 선생님과 함께 했던 것을 이용해서 기분 나쁜 감정을 씻었다. 그래서 상담반을 더 하고 싶다. 더 많이 선생님과 경험해서 더 좋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다음에 또 있으면 좋겠다.

바다

처음 와서 집단상담에 들었던 설레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쁜 일과 좋은 일 처음와서 같이 놀았던 일, 친한 친구와 더 친해진 일 난 고민을 털어 줄 수 있는 고민박사가 라고 자신있게 진단까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많이 많이 느꼈다. 뭐든지 끈기가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어 좋았고 다시 또 하고 싶다.

태권v

처음 예절실에 모인 친구들을 보았을 땐 난 실망했다. ‘저런 애들과 어떻게 앞으로 만나지’ 하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마지막 시간인 오늘 처음했던 내 생각이 너무나 우습다. 친구들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모두가 반갑고 그랬다. 예절실에 오면 장난을 칠수도 있게 되었다.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지금까지 친구에게 대해 별로 걱정을 안했었는데 점점 반에서 친구가 없는 친구

에게도 관심을 갖고 말도 해보고 그랬다. 우리 반에는 친구를 두고 누구네랑 친한가에 따라서 몰려 다니는 파가 달라진다. 언젠가는 나도 그 그룹에 있으면서도 이젠 혼자서 조용히 책도 보고 생각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다. 이 상담이 오늘이 마지막인데 나에게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같이한 친구들도 반가웠다.

유갱이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나를 알 수 있었다. 또 친구와 친하게 더 나은 나를 위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지 못했던 친구들도 알게 되어서 만나면 인사하고 웃고 즐거운 한층 더 즐거워진 생활이 되었다. 이 기회가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제부터 친구관계에서 힘들때나 괴로울 때 여기서 배운 것을 이용하여서 즐거운 나를 볼 수 있고 또 답답한 것보다 시원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겠다. 그 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처럼 시원하고 친구들도 다시 한번 보고 또 사이좋게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푸른하늘

재미가 있었고 다시 방학 때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미진이와 미혜보미 주현이와 다른 친구들과 같이 경험하고 싶다. 또 2학기때 아주 크게 힘들 때 아무도 없는 공원에 가서 소리도 지를 것이다. 또 솔직히 좀 창피할 때가 있을 때도 나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태권v랑 중간에 싸웠는데 화해를 한것도 이 상담때문인 것

같다. 친구와 지낼 때 내가 화를 내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었다. 다른 반 친구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
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상담을 하면서 친하게 되어 기분이 좋다.

명성황후

